

큰 스님 수행한담

“무량공덕 나옵니다”

“나도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
 선근 깊지 못하면 자주 후퇴합니다
 성자와 나의 근본성품 같으니
 ‘얼마만큼 닮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합니다. 실천에 앞서서 이론이 있어야지 이론없이 실천만 있으면 맹종이 되는 것이고 빛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론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시고 무수한 성자가 탄탄대로를 닦아놓으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길목도 연구하지 않고서 통사를 헤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어 있는길 환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안심법문(安心法門)입니다. 억지로 이것인가 저 것인가 상대적인 의심을 해서는 마음만 피곤할 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꿈 같다고 했으면 분명히 꿈 같다고 보고하고 그리자들 그리자로 여겨서 집착을 뿌리치면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공부가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 몸들이 이대로 있다고 인정하고 공부하는 것과 이 몸들이 본래 비었다고 여기며 공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



1965년 광주시 서석동 92번지 추경사에서 수계식을 갖고 수계제자들과 함께한 기념 사진(뒷줄 중앙, 추경사 자리에는 현재 조선대 의대가 들어서 있다.)

어는 누구나 성자가 되려면 깊은 삼매에 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성자가 되려고 하니 무리가 생기고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도 과연 성불할 수 있을까’하고 스스로 한계를 의식하며 자신없어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누구나 삼명육통을 다 할 수 있고, 위대한 공덕이 있는 성자와 내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불법입니다. 달마조사와 내가 틀어 아니란 말입니다. 절에 형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성품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지요. 다만 우리가 닦고 안 닦고, 또는 얼마만큼 닦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선근이 깊지 못하면 자주 후퇴합니다. 닦다가도 조금만 피로하면 ‘편히 살 것인데 괜시리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스님들은 편하게 승려생활을 잘하는데 무슨 필요로 그렇게 까다롭고 응색하게 하느냐고 해요. 삼매정진을 무시한다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제자를 가운데서 내가 잘 돌봐주고 인자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계행이 철저해서 시봉하고 싶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무애행(無礙行)’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걸림없네 하면서 짓는 과거는 무애행이 아닙니다. 수행의 적인 법입니다. 진정한 무애행은 법기에 고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행을 지키고도 걸림이 없는 것, 그것이 무애행입니다.

하면 놀기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장과를 와는 아니지요.
 이런 수행이 나에게서 충분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에 힘을 얻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조금도 몸이 부딪히지 않고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있는 만큼 더 맑아지니 말입니다. 혼침도 미처 참지 못하고 망상만 피우고 그럴 때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지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두철미하게 다 바르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나같이 토굴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사람 근기에 따라서 수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본적인 출가 수행자의 청규가 오

환희심나는 행복(法喜禪悅)을 음식으로 하고, 법(法)을 음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법에 대해서 환희심으로 충만하다면 그때는 안 먹어도 마음이 충만하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막히고 남 미워할 때는 필요없이 자주 먹게 되지 않습니다.
 은사하신 금타스님은 번뇌를 녹여서 성자가 될 때 중도실상의 생명을 체험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른의 가르침을 잡고 선방에도 몇월 다녔습니다만, 워낙 위대한 분을 스승으로 모신 터라 달리 스승을 찾을 생각을 내지 않고 토굴생활을 했습니다. 40대에는 모범적인 선방을 만들어 사람을 길러 보려고 토굴에서 나와봤지만 그것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 것은 내 역량 부족도 있고 인연이 아직 성숙되지

“이론없는 실천은 맹종... ‘안심법문’ 따르세요”

번뇌의 뿌리 뽑히면 중도실상 생명 체험

후에는 격지말아야 하고, 병자가 아닌 한에는 한 번 일어나면 최정시간까지 앉아서 공부할 것이지 자리에 눕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재가불자들도 적어도 한 달에 여섯 날은 오후불식이라고 권합니다. ‘재일’이라 해서 한 달 가운데 스스로 정해서 여섯 날은 출가한 셈 치고 생활규범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만은 내외간에도 잡자리에 들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허튼 말도 안 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오로지 부처님 공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끼만 먹게 되면 사람들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몸 분위기가 대단히 좋아집니다.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적게 먹으면 먹는 양에 비해서 체내 흡수가 많아지게 되고 피도 맑아 집니다. 많이 먹으면 배설을 많이 하니가 흡수하는 비율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은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광명을 몸으로 하였으니 광명은 불생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지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식식(食食)이라, 마음으로 음식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얹어서였겠지요. 그래서 다시 토굴로 들어가고 또 나와보고 그러다가 60살 넘어서 온전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생명자체를 중도실상의 생명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금타스님께서 쓰신 <금강심론(金剛心論)>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중생의 육안은 번뇌에 때문에 오염된 육안이기 때문에 금전의 세계를 알려고 할 때는 중생의 육계번뇌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비로소 천안통이 나온다”
 육계번뇌의 뿌리를 뽑으면 천안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 나도 번뇌의 뿌리가 뽑히려면 천리만리입니다. 평생동안 노력해야지요. 번뇌의 뿌리가 뽑히면 밝이 하늘로 뜬다는 말씀이 경문에 있습니다. 전혀 무게를 못느낀다고 합니다. 실로 무게가 있지 않은 것인데 ‘나’라는 관념, 번뇌 때문에 상(相)을 내고 무게를 느끼는 것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는 먼저 길목을 알아

습니다.
 그리고 근본 정통선을 익혀야만 참다운 선정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도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정통선으로 해서 사선정(四禪定) 사공정(四空定) 멸진정(滅盡定)까지 못간다면 우리 자성이 갖추고 있는 무량 공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자성 가운데는 삼명육통(三明六通)등 무량 공덕이 갖춰져 있는데, 삼매로써 습기를 녹여야 무량공덕이 나옵니다. 불교가 다시 옛날 도인들처럼 화광삼매(火光三昧)에 들어서 자기 스스로 불을 내어 자기 몸을 태우는 정도는 정도의 도력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현대 물질사회에 젖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고, 제도하기도 쉽습니다.
 부처님 육성과도 같은 (아함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불교란 결국 기도를 하든지 열불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일념이 되고 업장이 녹아서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바른 깨달음, 바른 계시를 받으려면 꼭 그래야만 합니다.

원자

원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박순달

4대와 原子

달톤은 1908년 저서 <화학철학의 새로운 체계>에서 물질의 기본단위는 원자라고 정의하고 이 원자의 질량인 원자량 개념을 도입하여 원자설을 확립한다. 이 원자설에 의하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들이 모여 분자를 만든다. 분자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물질의 최소단위이다. 산소, 수소는 원자이나 물은 산소와 수소로 구성된 분자이다. 18세기에는 공기속에서 여러 가지 원자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 구리, 니켈, 코발트, 금, 아연, 백금, 수은 등이 발견되어 자연계에는 30종의 원자가 존재했다. 19세기까지는 대략 90여개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립된 원자설도 몇십년을 견디지 못했다.

베르셀은 1896년 인화지를 검은 종이로 싸고 금속무늬판을 놓고 그위에 우라늄을 놓아본 결과 인화지에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방

은동법칙으로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한 순간에는 여기 있고 다른 순간에는 저기있어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20세기 초 원자속에서의 이같은 예측불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닐스 보어는 원자세계의 불확정성은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로 반박하였으나 아직도 닐스보어의 견해가 우세하다. 이것은 방사선 물질의 붕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고 같이 물체의 운동은 확실한 인과로 설명할 수 없고 단지 확률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다시 정립된다.

러더포드는 1919년 라듐을 질소에 쏘여 산소로 변환시켰다. 현대관연금술을 실현한 것이다. 1932년 원자핵을 인공적으로 파괴하는데 성공한 마이트너, 오토한, 스트라스만은 1938

원자→소립자→쿼크로 기본단위 변화 물체의 운동 인과보다 확률로 설명

사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부인 큐리는 새로운 물질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다. 라듐은 현재 의료용 다방면에 쓰이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다. 이 방사선의 발견으로 원자가 단순히 더 분해할 수 없는 물체가 아니라 원자 역시 다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로써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알파선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속도를 잃고 정지하면 헬륨이 된다. 이 사실로 그 방사능 물질의 원자 내부에는 헬륨의 원자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러더포드는 1911년 원자모형을 제시하는데 이 모형에 의하면 원자 속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크기로 보면 보통 원자의 크기는 1cm의 1억분의 1정도이다. 그런데 원자핵은 1cm의 수천억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수성, 화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의 축소모형과 같은 것이다. 원자는 매우 작고 고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 텅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원자의 대부분 질량은 원자핵에 모여 있다.

그러나 전자들의 운동이 천체운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달, 행, 지구 등 천체의 움직임은 만유인력과 뉴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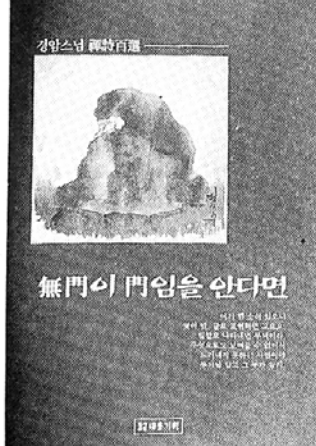
년 우라늄을 중성자로 때려 바리움과 크립톤으로 분열시키는데 성공해 원자탄을 만드는 기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1932년 하이젠베르크는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새 이론을 제시했다. 이것은 원자핵도 다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소립자라고 부른다. 소립자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1955년에는 중성자의 반입자를 발견하게 된다. 이 반입자는 중요한 뜻을 가지는데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빛이 된다.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가 있다. 입자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과 반물질(반물질은 역시 물질이다)이 만나면 그 물질이 빛이 되어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물질의 기본단위가 원자설이 성립된지 30년만에 이제 물질의 기본은 소립자라는 소립자설로 바뀐 것이다. 더 나아가 켈빈은 소립자보다 더욱 기본적인 물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쿼크(Quark)라고 명명했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쿼크를 발견했고 이제 물질의 최종 구성 단위는 정자와 같은 경입자, 쿼크, 중입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산업공학과)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경암 김준현스님 禪詩百選
 時調詩로 엮은 깨달음의 詩!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깨칠 것인가를
 잔잔한 물결처럼 나직히 일러주는 스님의 목소리...



경암스님의 시는 간단하면서도 한구절 한구절이 깊이 음미하면 불교인식의 구경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짧은 인생을 길게사는 법을 관념적으로나마 알게된다.
 - 장이두스님 발문 중에서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8만 4천 법문이
 꽃 한 송이에 감춰져 있고
 눈 푸른 남자(衲子)는 꿈 깨어
 회열로 이말 쳤단다.
 無門이
 門임을 안다면
 네 이마도 안 남으리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정가 10,000원)

바른불교 · 식은불교 · 생활불교를 펼치는

정토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4학기 2년 과정인 본 대학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직접적인 수행실수 그리고 불교의 사회적 실천활동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보다 중요롭고 지혜로운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학	기간	요일	시간	차기	교과	과정
홍제대학	3월 14일-7월 18일	매주 금	주간.야간	4차 3기	■ 제4차 제1기	■ 제4차 제2기
서초대학	3월 13일-7월 17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 실천적 불교사상	● 인간불다, 그 위대한 삶
성남대학	3월 12일-7월 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1기	● 진실한 신앙생활	● 불교사상의 뿌리, 근본불교
대전대학	3월 14일-7월 18일	매주 금	주간	4차 3기	● 사원의 구조와 불교의 예절	● 수행의 본질과 힘, 오대수행
대구대학	3월 12일-7월 16일	매주 수	주간.야간	4차 3기	● 특강: 불교와 사회(1)	● 특강: 불교와 사회(2)
부산대학	3월 11일-7월 15일	매주 목	주간.야간	4차 1기	■ 제4차 제3기	■ 제4차 제4기
경주대학	3월 11일-7월 15일	매주 화	주간.야간	4차 1기	● 불교교학의 두가지 체계	● 불교의 세계적 변천사
					● 부처님나라, 인도의 불교사	● 진리의 바다, 경전의 세계
					● 세계관 전환을 위한 종교론	● 마음을 찾는 길잡이, 심수도
					● 특강: 불교와 사회(3)	● 특강: 불교와 사회(4)

● 주간: 오전 11시 - 오후 1시 / ● 야간: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본 과정은 중간 학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원서교부 및 문의·접수처

- 서울 홍제 정토불교대학 / 전화: 02-379-1650-2
- 서울 서초 정토불교대학 / 전화: 02-522-2841, 582-1080
- 성남 정토불교대학 / 전화: 0342-721-7062, 722-1760
- 대전 정토불교대학 / 전화: 042-534-9166
- 대구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3-761-5970
- 부산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1-557-2746, 553-9934
- 경주 정토불교대학 / 전화: 0561-772-1950

모집 대상 및 입학금

- 대상: 누구나 (다만 19세 이상)
- 참가비: 6만원
- 접수.문의: 각 지역 대학 사무국

정.토.불.교.대.학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30-60 인왕빌딩 2층
 전화: 02-379-1650-2